

#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정론



**COVER STORY** / 김관용 경북도지사

**FTA** / 경북도, 미국시장 공략 강화

**포커스 리딩** /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 '암울'

**핫이슈 경북** / 경북도 일자리 창출 박차

**전문가 기고** / 뿌리의 비성(飛上)을 기대하면서

**프라이드 경북** / 경북도, 하회·양동마을 세계적 관광명소 육성

**지자체는지금** / "경주에 대기업노동조합 자연휴양림 들어선다"

**이슈&뉴스** / 대구 서구청 화상경륜장 유치 않기로



»» Photo Essay

# 임진년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글·이한나 기자

임진년 일출(日出)이 찬란하다.  
혹한 겨울바다의 차디찬 바람을 이겨내 듯  
지난 한 해 아쉬웠던 기억을 지워내며  
다시 희망의 새아침을 준비하자  
오늘과 내일사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떠오르는 태양의 저 이글거리는 열정을 품고서...



사진제공/포항시청

경영저널 [www.경영저널.com](http://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0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 편집인 서기대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장승욱 | 취재기자 성진학, 홍순대, 이종수, 이광희, 이동현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철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임진년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 04 \_ News wide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06 \_ Economic trend / 대구·경북지역 대형소매점 매출 급증
- 08 \_ Cover story / 김관용 경북도지사
- 12 \_ FTA / 경북도, 미국시장 공략 강화
- 14 \_ Focus reading /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 '암울'
- 18 \_ 법령해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 20 \_ 투게더 피플 / 대구대 '나눔사랑' 적극 동참
- 21 \_ 장바구니 물가 / 식량작물 물가 고공행진
- 22 \_ 핫이슈 gyeongbuk / 경북도 일자리 창출 박차
- 24 \_ pride gyeongbuk / 경북도, 하회·양동마을 세계적 관광명소 육성
- 26 \_ 전문가 기고 / 뿌리의 비상(飛上)을 기대하면서
- 27 \_ Travel sketch / 비슬산 얼음축제
- 28 \_ 재테크 / 파생상품시장 개인 투자 대폭 제한
- 30 \_ Life style / 유통가 날씨마케팅 후끈
- 32 \_ 지자체는 지금 / "경주에 대기업노동조합 자연휴양림 들어선다"
- 33 \_ 이슈&뉴스 / 대구 서구청 화상경문장 유치 앞두고
-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대구·경북지역 축산농가 큰 폭 감소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 기후변화 적극 대응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탄소상쇄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어업분야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도·농 상생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종 및 재배기술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재배를 확대하고 아열대 소득 작목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저탄소 기반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업 기상 예측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폭염, 한파, 폭우 등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급증하면서 민감산업인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액은 3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장기적으로 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되면 국내 농어업분야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가중시키는데, 기온이 2℃ 상승할 경우 쌀 생산량은 평년보다 4.5% 감소하고, 사과 및 고랭지배추재배면적도 66%, 70% 각각 줄어드는 것으

로 파악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서울에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열고 올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 규모를 6만1천966t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주로 잡게 되는 어종은 명태가 4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오징어 8천t, 콩치 7천500t, 대구 4천450t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번에 확보한 명태와 콩치, 청어 조업쿼터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반면 오징어 조업쿼터는 지난해보다 2천t 감소한 것이지만 조업척수는 104척으로 14척 늘어난 것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산 계류의 불법교역을 막아 달라고 협조했고,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된 수산물을 신고 입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러시아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투자자가 냉동 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분야 등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할 시 협조하기로 하는 등 투자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추진상황 및 계획안'을 보고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규모를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9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기존에 실업자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내일배움



카드'를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올 상반기 중에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을 도입해 전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택배 및 커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사 도우미 등 가사 근로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보보안 인력·예산 확충

지식경제부가 오는 2015년까지 산하 30개 공공기관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고, 정보보안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통합 사이버 모의 훈련장을 구축하는 한편 오는 2015년까지 산하 공공기관 30곳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별로 정보보안 담당관을 지정하고,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정보기술 인력의 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보보안 예산도 선진국 수준인 IT예산의 10%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보안구역(Clean Zone)을 설치하고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인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 범부처 SW 인력양성사업 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범부처 SW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12년간 3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사업'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범부처 SW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발환경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현

장형 고급인재 양성'과 '창의형 명품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현장형 고급인재 양성'은 석박사급 이상의 학생이 대규모 또는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SW 기초 및 원천 연구, SW플랫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기술을 가진 고급인력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SW 5대 분야별로 1개 연구팀을 선정하고, 5년간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경부 또한 SW 플랫폼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 3곳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육성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의형 명품인재 양성사업'은 이른바 '한국형 스티브잡스'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인재들에게 SW를 기반으로 인문학·경영학·공학 등 다양한 교육과 아이디어 구현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매년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2개 대학을 선정하고 총 10년간 매년 5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관심있는 대기업이 이를 선정해 기업내 우수인력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향후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주력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기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과학분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15개 과제 중 과학분야 6개 과제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대학연구원제도나 연구장비엔지니어제도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재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대학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진화 선임기자**

# 대구·경북지역 대형소매점 매출 급증

## 신규점 출점 효과 커...영세 소상공인 직격탄

최근 5년간(2005~2010년) 대구·경북의 대형소매점 매출이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점 출점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근 들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 개점이 잇따르면서 전통시장 매출 감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 대형소매점 매출 큰 폭 신장

대구와 경북의 대형 소매점 매출은 최근 들어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5년간 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대형소매점 매출은 지난 2005년 2조6천607억400만 원에서

2009년 2조7천9억9천200만원에 이어 2010년엔 2조9천310억 8천3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경북의 대형 소매점 매출은 2005년 8천918억8천500만원에서 2010년엔 1조3천675억3천500만원까지 확대되는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대구와 경북의 대형 소매점 매출 비중은 각각 5.0%, 2.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대형소매점 매출은 58조원에 달했다.

### 업체별로는 희비 교차

그러나 업체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다. 대형마트 매출이 호조세를 보인 반면 백화점 매출은 정체 단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백화점 판매액은 1조2천737억원을 기록해 5년 전인 2005년의 1조1천979억원에 비해 0.4% 신장하는데 그쳤다.

시장 점유율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전국 7대 도시 백화점 판매액 가운데 대구지역 매출 구성 비중은 지난 2005년 6.9%에서 2010년엔 5.2%를 기록, 5년새 1.7% 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달리 대형마트는 이른바 '폭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대형마트 매출은 1조6천574억원을 기록해 5년새 13.3%(1천9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대형마트도 신규 출점 요인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경북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88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74.3%(4천637억원) 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대형마트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경북지역 비중은 2005년 2.6%에서 2010년엔 3.2%로 0.6% 포인트 신장했다.

한편 영업점 1곳당 지역별 평균 판매액은 서울(1천137억원)과 경기도(796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789억원, 544억원에 그쳤다.

### 역외 대형소매점 지역 상권 입김 강화

이처럼 역외 유통업체들의 지역 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구는 이미 역외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한지 오래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역외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롯데쇼핑이 지난 2003년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오픈하면서 본격화된 이후 최근 들어 한층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에는 이랜드그룹의 유통사업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38년 역사의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지역 유통 시장에서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해 8월에는 현대백화점이 대구점을 오픈했고, 최근에는 국내 대표 유통업체인 신세계 또한 동대구 복합환센터 개발 사업자에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2014년 '대구진출' 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 국내 백화점 '빅3' 인 현대·신세계·롯데백화점 모두 대구에서 영업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역외 유통공룡들의 지역 진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의 유통사업계열인 롯데쇼핑은 지난 2010년 7월 동구 울

하역 부근에 영업면적 3만500㎡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쇼핑몰 롯데쇼핑플라자를 오픈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신개념 쇼핑시설 롯데몰(Lotte Mall)을 개점하는 등 지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 기업 이윤 지역사회 환원 인식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 여론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역외 대형 소매업체의 등장에 밀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층 몰락, 지역 자금역외 유출 등 서민경제 근간을 흔들며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역외 대형 소매점은 매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사회 기여도 또한 쥐꼬리 수준에 그쳐, 시·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역외유통업체들의 매출액과 지역기여도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대구에 영업점을 확보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19곳과 백화점, 쇼핑센터, 아울렛 등 역외 유통업체 25곳의 매출은 2조5천 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업점 1곳당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내놓은 지역사회 환원자금은 고작 25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금융기관 평균 잔액 역시 25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인식한 반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진학 선임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

**출생** 1942년 경북 구미

**학력** 대구사범학교 졸업  
영남대 경제학과 학사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금오공과대 명예공학박사

**경력**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민선 1·2·3기 구미시장  
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  
민선 4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미FTA대책 특별위원장

**상훈** 정부근정훈장  
한국능률협회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지역혁신평가 최우수상  
캄보디아 최고훈장 '로알 모나시리모인 미하체냐'  
아시아경제문화리서치 대한민국경제문화대상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호지도 분명히 다지고 있다.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과 경북의 정체성 확립사업도 차질 없이 완성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12월29일 경북도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김 지사는 “민선 5기 임기 내에 일자리 22만개 창출과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뜻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북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밑알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 “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 집중할 터 ”

## 일문일답

**Q** 경북도가 호국과 보훈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A**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저 공짜론 절대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애국심 또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지역 곳곳은 국난극복의 산 현장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했고, 6·25 전쟁때 최후의 방어선이자 승전의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낙동강 호국평화벨트는 나라를 지킨 호국의 정신을 역사와 문화, 관광을 융합해 새롭게 보여주지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멋진 기념공원이 아니라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학습하며 교육할 수 있는 산 현장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기념공원과 청소년교육장, 전쟁체험시설 등을 두루 갖춰 호국을 통한 국민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계 호국평화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Q**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에 대해선?

**A** 독도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경북도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 외교 등 국가적 대응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반면 독도를 직접 관할하는 경북도는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도에 방파제와 독도 입도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근의 울릉도에 항만,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 편의시설을 구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고무적인 성과도 참으로 많습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해온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정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독도 영토관리대책 사업'으로 확정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엔 독도에 대형 태극기도 게양했고 독도주민과 어민들이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독도주민숙소를 신축한 한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도 최근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독도방파제 조성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도에 독도수호의 상징적 인물인 안용복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한 안용복기념관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독도문제는 하루이침에 무엇을 이루겠다고 뛰어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독도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과 반만년을 이어온 문화적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독도수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선?

**A** 동해안은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그 비중이 실로 막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합당한 대우를 마련해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굳이 한 가지를 꼽으려면 저는 주저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은 그런 에너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철저히 소외된 탓에 개발과 발전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은 이젠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덕분에 청정에너지 생산지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도 또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및 기업유치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 및 인력 인프라를 최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 Q '정체성' 확립에 나선 계기는?

A 오늘날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아울러 현대인들은 그 속에서 가치 혼돈 및 방향성을 상실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체성 정립은 바로 자신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고 상대방에 대해 신뢰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특히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초석으로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를 위해선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경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본다면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호연지기를 키워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화랑 정신과 고매한 사상으로 도의를 실천했던 울곧은 선비정신, 그리고 수많은 국난 속에서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었던 호국정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가난을 떨치고 근대화의 선봉이 되었던 새마을정신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도민 모두가 정체성 확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Q '새마을운동 세계화' 를 위해선?

A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보급하는데 한 치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道)로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시대적, 외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1950~60년대 극심한 가난에 허덕였고, 이 시기 국제사회의 원조와 우리 스스로 가난을 떨쳐 보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절대 빈곤에서 탈피한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값진 경험을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국가에 전수해야 하는 것은 경북도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북도가 지향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목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저개발국의 절대 빈곤극복을 도와주고, 자립역량 강화 등 국가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마을역사관,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영남대 박정희리더십연구소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새마을, 인류공존과 번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이란 가치를 내걸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 각국에 새마을운동 보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 Q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선?

A 기업은 생산과 고용의 강력한 엔진으로, 그리고 수출은 국부를 살찌우는 동력으로써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수출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

고 이를 통해 고용과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낸 것은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그래서 '취직 좀 하자'란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기업유치와 수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선5기동안 일자리 22만개 창출과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Q FTA시대를 맞아 수출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선?

A 우리나라는 46개국과 FTA를 발효 중이거나 발효 예정이며 12개국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 통상국가입니다. FTA로 경제영토가 확장된 것은 분명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개발,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한 수출중소기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7년부터 FTA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설명회를 확대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비해서도 이미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미시장을 겨냥한 종합수출마케팅 대책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FTA시대를 맞아 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작정입니다.

## Q 낙동강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A 경북도 입장에서 낙동강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 후진국형 재해인 홍수나 가뭄이 반복되면서 그간 재산상 손실과 함께 인명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난 10년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135명의 고고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사업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낙동강 주요 구간에 총 6개보가 생겨 3억6천만톤의 물을 가둘 수 있는 만큼 강변 주민들이 홍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된 셈이지요. 아울러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낙동강변에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3천567ha의 저지대 농경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낙동강에서 남한강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총 길이 607km의 국토녹색길도 조성되었습니다.

경북도는 낙동강 유지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주민편의시설 및 친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현재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은 '보존과 이용'이란 균형을 바탕으로 '선계획, 후개발'의 대원칙을 토대로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계획입니다.

나아가 친수공간은 지역 특성과 개발수요 등을 감안해 수변공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주거, 상업, 문화, 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문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희망찬 낙동강 시대'를 열어젖혀 새로운 강(江) 문화를 창조해내겠습니다.

대답=서기대 편집국장  
정리=성진학 선임기자





## 경북도, 미국시장 공략 강화

FTA계기로 지역 수출기업 미국시장 진출 적극 지원



경북도가 올해 지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경북도는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미시장을 겨냥한 수출 마케팅대책을 내놨다. 본격적인 한·미FTA 시대를 앞두고 지역 수출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 지역 주력제품 관세혜택 '특특'

우여곡절 끝에 최근 국회 비준을 통과한 한·미FTA가 정식 발효되면 지역 수출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상품의 대미(對美)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6년 4.7%에서 2011년(상반기기준)엔 2.6%로 하락했지만 이 기간 국가별 시장점유 순위는 영국을 제치고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경북지역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77억3천만 달러로, 전국의 대미수출 규모인 498억달러의 15.5%를 점유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8천628개 품목(대미 수출 품목의 82%), 우리나라는 9천61개 품목(전체의 80.5%)의 관세를

상호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동안 국내 실질 GDP는 5.7% 증가하는 동시에 일자리 35만개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FTA발효를 계기로 대미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또한 연 평균 27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FTA 관련부처 측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한·미FTA발효에 따른 경북지역 주요 품목별 영향과 수출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지난 2010년 대미수출

은 2009년 대비 30.9% 늘어난 56억2천1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기준으로 수출규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49억9천6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국내 전체 대미수출의 32%를 차지한 것이다.

### 대미 수출 큰 폭 증가할 듯

경북도는 한·미FTA 정식 발효 시 지역 주력제품의 대미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터치스크린모니터(2.7%), 컬러TV(5%), LCD모니터(5%) 등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평균관세가 2.7~5% 가량 즉시 철폐돼, 지역 수출기업들의 관세혜택이 클 것으로 경북도 측은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또한 관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미국시장 내 부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

### 미국시장 개척 지원 총력

경북도는 이에 따라 올 초 한·미FTA 발효가 유력시 되는 만큼 지역 수출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발효와 함께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자동차부품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미국 내 우량 바이어(Big Buyer)초청 수출 상담회를 비롯한 자동차부품 북미토탈마케팅사업과 FTA자동차부품 전문수출촉진단 파견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섬유산업의 경우 올해 미국 내에 인지도가 높은 'LA텍스타일쇼', '프리뷰인 LA', '텍스월드 USA' 등 관련 전문 전시회에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30여 곳을 참



로 예측된다. 경북도는 한·미FTA 발효 시 평균 2~4%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돼 지역의 대미 수출은 연 평균 5천5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지역 자동차부품의 지난 2010년 대미수출은 2009년 대비 53.4% 증가한 4억4천만달러(전국 수출의 10.8%)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기준으로도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4억2천만달러(전국 수출의 10.1%)에 달했다. 섬유산업 역시 비교우위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1억8천300만달러 가량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 평균 3천300만달러씩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경북도 측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북지역의 섬유류 대미수출은 2009년 대비 34.1% 늘어난 1억4천만달러(전국의 11%)를 기록했고, 지난해 10월말기준 수출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1억3천만달러(전국수출의 11%)로 확대됐다.

가시길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의 LA 및 뉴욕통상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해 미국시장을 체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관련 컨설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미시장을 겨냥해 해외 공동물류지원센터, 지사회사업 등 KOTRA 수출마케팅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삼 경북도 국제통상과장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도내 수출은 434억 달러, 수입은 195억 달러를 기록해 23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소비재대전 및 정보통신박람회(CES 2012) 참가를 시작으로 대규모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해외규격인증지원 및 레드카펫(Red-Carpet)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출마케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수 산업전문기자

#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 '암울'

유로존 재정위기 등 발목...경상수지 흑자폭 대폭 축소될 듯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는 동시에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런 전망치는 주요 국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에서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중앙은행과 국내 주요 민간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올해 대내·외 경제전망 자료를 분석·점검한다.

##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한은은 우선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한 풀 꺾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로지역 재정위기 여파로 선진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 영향이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한은 측은 예상했다. 하지만 한은은 주택시장 경기 부진세가 미국경기 회복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용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민간소비 역시 빠른 속도의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EU시장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긴축과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 침체국면(Mild Recession)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와 관련, 한은은 회원국 사이에 산재한 이견을 조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ECB 역할 확대와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유로존 국가간 입장차가 너무나 커 재정위기 극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리스에 이어 국가채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 수준에 달해 올 1~4월 중에 대규모 국채만기 시기를 맞게 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은 측은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해선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아울러 세계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과 소비 간 괴리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예측기관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4.0%로 가장 낙관한 반면 OECD와 EU는 각각 3.4%와 3.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IMF와 OECD, EU는 주요 선진국 경제 성장률 또

한 각각 1.9%와 1.6%, 1.3%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글로벌 상품시장에서의 주요 원자재 가격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한은 측은 보고 있다. 이 중 석유가격의 경우 주요 선진국 경기 악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얘기다.

한은 측은 "이를 토대로 볼 때 올해 국내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비철금속도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 하락세를, 곡물도 공급 확대에 따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한은 측은 예측하고 있다.

## 국내 경제도 위축 불가피

국내 경제여건도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3.7%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 소득여건이 나아지면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반대로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또한 세계교역량 감소 영향으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30억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 측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272억달러에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폭이 둔화되겠지만 특히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한은 측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수입은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대(對) GDP비율을 1%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2013년엔 1% 미만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취업자수는 28만명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40만명 증가한 것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실업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3.4%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보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상승률 3.3%를,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지수는 2.7% 상승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 세계 경제는 유로존 국가채무문제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무역시장에서는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

다른 민간연구원 역시 비슷한 보고서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한결같이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어렵게 내다보고 있다. 우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산업 전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8%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측은 올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3.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하반기엔 이보다 높은 4.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성장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차츰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때문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측은 밝혔다. 연구원 측은 이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순수출 기여도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지난해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및 유가안정 덕분에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져 지난해보다 3.1%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시장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2.8%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





측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SOC 관련 예산 축소로 토목부문의 부진세는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수출과 상품수입도 증가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8.9%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장률 11.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상품수입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수입 수요 축소로 이어지고, 이를 완화하기 상승분이 부분적으로 완충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1%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 측은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폭도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 213

억달러에 비해 62억달러 감소한 15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3.5%,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 측은 “올해 주요 선진국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세 또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다른 민간 연구소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국내 주요 민간 연구소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 중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 성장률을 각각 3.5%와 3.6%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위기 후유증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물가 억제를 위한 긴축통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둔화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LG경제연구소도 이와 엇비슷한 전망치를 최근 발표했다. LG경제연구소는 우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6%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내구재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구재 완성품과 관련 부품 등 우리나라 수출주력 제품의 무역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춰 잡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화될 경우 성장률 3.7%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경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3.8%로, 2012년엔 이보다 더욱 떨어진 3.7%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망치인 4% 후반대와 비교하면 1.0% 가량 하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0%에서 올핸 3.2%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에 처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해법이 올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성장률 3.7%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진학 선임기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공고 취지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35호

###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같이 입법 예고에 나선 것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추진 시 부처·청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관련 법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청 의 청장과 통계청장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농어촌영향평가 운용 및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11년 7월25일 공포·2012년 1월26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무 처리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가.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6조제2항)

(농어촌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분석과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신설)

나. 농어촌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분석 및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6조 신설)

(농어촌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운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 효과가 기대됨)

다. 범부처 간 복지정보 연계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해당 자료

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설)

(사업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함)

라.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윤일형 편집위원

#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류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가입시 혜택

-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터(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 대구대 '나눔사랑' 적극 동참

건학정신 실천...사랑의 전령사 자리매김

*올해로 개교 56주년을 맞은 대구대학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건학정신인 '사랑, 빛,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전령사'로 거듭나고 있다. <편집자 주>*

대구대는 지난해 5월 DU문화원 주관으로 교수와 학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식나눔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다. 언어치료, 방과 후 과학교실 등 전공 교육을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들 봉사단원들은 지역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정(情)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산캠퍼스 제1학생회관에 재활용품 상설판매점인 'DU나눔가게-pum'을 개점한 것도 봉사활동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나눔봉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DU나눔가게-pum'에서는 동문, 교직원, 학생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소외 계층 지원 등 나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나눔봉사단은 대구대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참가하고 있다. 이들 단원들은 지난 연말 지역의 복지시설에 난방연료인 연탄과 김장 김치를 제공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대구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교직원과 재학생이 한마음 한뜻이 돼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복을 나누는 일류 대학'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엔 재활과학대학 부근 밭에서 수확한 배추 1만 포기, 김장김치를 담가 성보재활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 40여곳에 전달해 화제를 모았다. 교내 축제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득 마련하고 있다. 축제기간동안 학교 주위의 홀몸어르신을 초청해 물리치료, 안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가하면 직접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집안 청소는 물론 반찬거리 등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재학생들은 또 농번기 철곡, 영덕 등 농촌지역을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캄보디아 등지를 찾아 바자회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현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한 톨의 밑거름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 식량작물 물가 고공행진

출하감소, 수요증가 등 영향

지난해 연초부터 4%대 고공행진을 보인 소비자물가가 최근 들어선 상승률 3%대로 떨어지면서 다소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 하지만 품목별로는 여전히 들쭉날쭉하다. 이 중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식량작물을 꼽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하향안정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쌀, 고구마, 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 강세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량작물의 경우 최근들어 생산농가의 출하 관망, 저장분 출하물량 감소, 간식용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격 강세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판매된 쌀 도매가격(상품 20kg)은 4만2천원으로, 1년전보다 7천원 뛰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날 대구지역 대형소매점인 S-유통과 N-유통에서 거래된 소매가격(상품 20kg)도 각각 4만3천800원과 4만5천5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전 이맘때와 비교해 3천원, 3천500원씩 각각 치솟은 것이다.

쌀값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해 생산물량이 감소한 데다 농가들이 앞으로 산지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출하를 미루고 있는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구마와 감자도

가격 강세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고구마의 경우 저장분 출하물량은 감소한 반면 최대 수요시즌인 겨울철을 맞아 간식용 등 소비 증가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가격 강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된 고구마 도매가격(상품 10kg)은 평년의 1만8천833원에 비해 1만2천67원(65%) 오른 3만3천원까지 상승했다. 소매가격 흐름도 이와 비슷해, 같은 날 대구지역 H-마트 거래가격(상품 1kg 기준)은 5천480원으로 평년에 비해 1천500원 이상 올랐다. 급식시설에서 반찬용 수요가 많은 감자도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최근들어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대구지역 대형소매점인 H-마트의 판매가격(감자 수미 상품 1kg)은 6천980원으로 평년에 비해 2천788원 상승했다. 이 기간 대구지역 도매가격(수미 상품 20kg)도 9천원 이상 오른 3만3천원에 거래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감자의 경우 최근들어 식자재 수요 증가 요인에 따라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대표적 식량작물인 쌀값의 경우 산지출하 물량이 줄어든 게 주된 원인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가격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동현 통계전문기자



## 경북도 일자리 창출 박차

청년층 구직지원 프로그램 확대·글로벌 기업 투자 통해서도 고용 증대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상징물이 있다.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 도청 정문의 조형물이 바로 그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결과,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1 지자체 사회적기업 확산노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이런 성과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발자취를 알아보고 경북도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짚어본다.

###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경북도는 지난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청년일자리 New Deal' 정책 2단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큰 결실을 거뒀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 육성, 문화콘텐츠 발굴 등 7대분야 50대 시책을 추진해 청년층 실업률을 6%대 아래로 떨어트리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해외글로벌리더 인재 양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 총 8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 구직자 100여명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현재 3개기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경북도는 사업계획 수립과 현지 체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수비용과 참여대학 선정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대상자 선발과 출국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1인 창업

기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엔 2010년 상반기 일자리평가 시상금 10억원을 활용해 경북테크노파크에 '청년창업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창업 실무특강과 시제품제작, 박람회 참가 등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로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지원해주고 있다.

가시적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센터에 입소한 50개팀 중 20여개 창업기업에서 수익을 거뒀고, 아울러 고용창출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1인 창업기업 300곳을 추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0곳 늘어난 것이다.

도는 이밖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업을 통해 인력난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279명의 인턴을 채용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한 몫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고졸이하의 저학년  
청년층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  
이 높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적기업 육성도 총력

최근들어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도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도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시  
·군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전의 '행복드림'과 안동의 '포드림'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곧바로 인증을 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도는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을 확대·지정하고 고  
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을 60여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  
우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이 없는 시·군에 대해선 반드시 1곳 이상  
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그랜드 플랜인 '경북도 착한 나  
눔 100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해 오는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와 일자리 2천개 이상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마을기업 육성도 적극 나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가 비즈니스를 통  
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  
한다. 지난 연말기준으로 경북지역엔 마을기업 33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을기업 육성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다. 마을기업 사업을 펼친 지 1년 남짓 지났지만 안정  
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주의 '순흥초군농약대'가 주역이다.

이 기업은 농약대들  
기반으로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대표적 관광지인 선  
비촌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편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주력

경북도는 글로벌 대기업 유치 등 투자유치사업을 통해서도 일  
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기준으로 경북도는  
총 4조3천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양해각서)를 제  
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해 26% 늘어  
난 것이다. 국내 기업에선 LG디스플레이(1조 3천500억원), 웅진  
폴리실리콘(4천650억원), 한국파워트레인(3천200억원) 등의 순  
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해외기업으로는 도레이첨단소재에서 1조3천억원을, 이비덴과  
노벨리스크리아에서도 각각 2천억원을 투자했다.

도는 앞으로 민선5기 동안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0조원을 달  
성, 좋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탠  
다는 방침이다.

포항·구미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  
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아울러 민선 5기동안 지속적인 대단위  
SOC사업과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서도 일자리 6만개를 새로 창  
출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SOC 및 국책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순대 정책전문기자



# 경북도,

## 하회·양동마을 세계적 관광명소 육성

도비 155억원 투입...관광편의시설 등 확충

경북도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지난 2010년 7월 세계에서 6번째로 유네스코 역사마을에 등재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아울러 도내 신라·유교 및 가야유적지에 대해서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하회·양동마을 정비사업 강화

경북도는 올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 1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55% 증액된 것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하회·양동마을 보수 및 불량가옥 정비와 안동 충효당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동 전통한옥호텔과 양동마을 유물전시관을 조기에 완공하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와 한옥체험촌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홍보채널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방송사와 연계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답사 프로그램 개발

△기업체 참여형 캠페인 전개 △600년 전통의 선비문화 기반의 스토리텔링작업 강화 등 우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아울러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해 지난해 1월 세계문화유산보호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그 해 3월부터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3D 입체영상 등 첨단 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카탈로그 제작, 보급을 위한 세계유산센터 건립 사업에 기본계획용역비 8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국내·외 관광객 급증

경북도의 이 같은 전방위 노력은 최근들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이후 두 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경북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99만명과 37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경북도 측은 전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이전인 지난 200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100%씩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하회마을은 단일 관광지로 연중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박제화된 문화재가 아니라 생활유산(Living Heritage)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원형 보존과 관광자원화사업을 강화해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역사·문화·관광자원 세계유산등재 적극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옥산·병산·도산·소수서원 등 지역의 서원 4곳과 신라·유교 및 가야문화 유적지에 대해서도 세계유산등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울릉도를 세계지질공원에, 울진의 금강송과 왕피천을 세계자연유산에, 정부인 안동장씨의 한글 최초의 음식조리서인 음식디미방과 김유의 수운잡방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나아가 세계 최초의 토지소유 소나무인 예천 석송령의 기네스국 등재와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진학 선임기자

# 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다. 와가(瓦家·기와집)와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조선시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됐다. 하회마을은 풍수 지리적으로 태극형·연화부수형·행주형을 띤다. 마을의 동쪽에 태백산에서 뻗어 나온 해발 271m의 화산(火山)이 있고, 이 화산의 줄기가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면서 마을의 서쪽 끝까지 뻗어있다. 하회마을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선유줄 불놀이' 등 무형 문화유산도 즐비하다.

# 양동마을



경주시 북쪽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중가가 500여년 동안 전통을 잇고 있는 유서 깊은 반촌마을이다. 양동마을은 지난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 1992년엔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 곳을 방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시대 동성취락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50여호의 고와가(古瓦家)와 110여 호의 초가로 이뤄져 있다. 통감속편(국보 283), 무첨당(보물 411), 향단(보물, 412), 관가정(보물 442), 손소영정(보물 1216), 서백당(중요민속자료 23) 등 중요민속자료 12점과 손소선생 분재기(경북유형문화재 14) 등 도지정문화재 7점이 있다. 우재 손중돈 선생, 화재 이언적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명공(名公)과 석학도 두루 배출했다.

# 뿌리의 비상(飛上)을 기대하면서



김현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장

지난 2010년 10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열린 뿌리산업관련 한·중·일 국제행사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한 인사가 “중국이 뿌리산업분야에서 최고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2015년이면 물량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제조국으로 올라설 전망인데 제조의 근간인 뿌리산업에서도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에서도 뿌리산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뿌리산업은 금형, 주물,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용접 등의 산업으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공정을 다루는 산업을 의미한다. 기초적인 소비재부터 높은 기술력과 고부가가치를 갖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반드시 필요한 제조업의 근간으로서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또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서 대부분 대기업의 2~4차의 협력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뿌리기업들이 수익 악화와 기술개발 의욕 저하라는 상황 하에서 3D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규인력의 충원이 어렵고 업계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뿌리산업을 위해 뿌리산업의 주춧돌이 될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7월25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뿌리기업을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뿌리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차관으로 구성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매3년마다)과 연도별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 핵심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특화단지 조성·지원이 이루어지고 뿌리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뿌리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들에 대한 해외연수, 장려금 및 장학금 지급 또는 자녀학자금 융자 우대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지원과 핵심 뿌리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기업인에게는 창업자금과 관련정보 등이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뿌리에 날개만 있으면 뭘 하겠는가. 몸뚱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튼튼해야만 한다.

몸뚱이는 전체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그 몸뚱이는 다름 아닌 지금까지 뿌리산업에 종사해 온 기업대표와 종업원들이다. 그동안 주문생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상(飛上)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닭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만 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아무리 날개가 좋은 들 몸뚱이가 부실하다면 멀리 날지 못하고 바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뿌리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 산업이 한 단계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도 지역의 뿌리산업을 북돋우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뿌리기업의 자구노력과 뿌리기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의 상생협력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 비슬산 얼음축제

달성군의 명산(名山) 비슬산.

'바위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진 비슬산엔 매년 이맘때면 얼음축제가 장관을 이루고 겨울 운치를 즐기려는 가족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자료출처 : 달성군



# 파생상품시장 개인 투자 대폭 제한

## 시장 과열 방지...거래 위험고지 등 건전성 확보 강화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장내옵션, ELW, FX마진 등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가 대폭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시장 과열을 막기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 제한

금융위는 우선 투기성이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KOSPI200옵션 1계약 거래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상향해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옵션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시에 줄여 파생시장에서의 리스크 및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파생상품이 현물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KOSPI200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을 다른 시장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현금예약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선물거래시 사전위탁증거금의 3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예약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선물거래시 현금예약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증권 및 선물업체들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모의 거래 시스템을 제공해 왔지만 신규 투자 유인 등 마케팅 목적으로 치중돼온 점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파생거래 시스템 제공과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투자자들이 거래 전에 모의 실전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사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ELW시장도 규제 강화

금융위는 장외시장인 ELW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량종목 중심의 상장 유도를 위해 상장심사를 강화하겠다

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동성 공급 목적 이외엔 LP(유동성 공급자)의 호가제출도 제한해 스캘퍼(초단타거래자)의 거래를 줄이기로 했다. LP는 그동안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통상 20%)을 초과할 경우에만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한 나머지 호가제출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하면서 시장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유동성공급자들의 임의적 호가 제출을 막을 수 있어 시세에 대한 공정성 제고효과는 물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 측은 분석하고 있다.

또 ELW의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선 개별 증권사의 발행 횟수를 월 1회 이내로 제한하고 LP 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선 상장종목수를 제한해 시장 과열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자산, 전환비율 등 상품 내역 역시 충족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무분별하게 상장종목을 늘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FX마진시장 개인 참여 축소

FX마진시장에서는 개시증거금을 기존 5%(5천달러)에서 10%(1만 달러)로 올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유지증거금 역시 3%(3천달러)에서 5%(5천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FX마진시장은 선물회사나 증권사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고 주요 통화의 매매를 통해 환차익을 얻는 거래를 뜻하는데, 관련시장에 선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레버리지 축소로 인해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거래대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금융당국 측은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위험고지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의 과도한 고객유치 금지 등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얼마만큼 과열되고 있는지는 거래금액과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층 확인해진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장내옵션시장은 거래량 35억 계약을 기록해 세계 1위에 올랐다. 반면 현물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7위에 그쳤다. 바꿔말해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옵션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커,

이로 인해 웨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8월에 글로벌 신용경색이 가중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자 풋옵션 매매가 2.4배, 평균가격이 11배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파생시장이 투기장으로 전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관련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액은 589억원에 달했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으로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된 투자자보호 실태조사에 착수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FX마진 증거금 인상, 거래위험고지 강화 등 시스템변경 사항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희 금융전문기자





## 유통가 날씨마케팅 후끈

날씨 변화에 따라 매출 증감 확연...중요한 영업 전략으로 부상

유통업계가 최근 '날씨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날씨 변화에 따라 매출 증감 폭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날씨마케팅으로는 황사마케팅, 장마마케팅 등이 꼽힌다.

### 유통업계 날씨변화에 촉각

유통업계 가운데 날씨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은 단연 백화점 업체를 들 수 있다. 매장 직원들이 출근한 후 가장 먼저 챙기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기예보를 검색할 정도로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기상정보가 유통업 전체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은 판매액 기준으로 대략 5~10%로 파악된다.

특히 의류, 냉난방기기, 아이스크림, 술, 음료 등 소위 계절상품의 경우 날씨변화에 따라 매출액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변동폭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화점 영업 담당이 일기예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날씨변화가 매출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유통업계에서 최근 발표한 날씨와 매출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겨울 상품 판매를 위한 최적의 기온은 영하 6도이며,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추위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탓이다. 음료업계 역시 날씨와 매출은 뿔레야 뿔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낸다. 특히 음료, 빙과, 맥주업체는 여름철 기온이 매출액과 직결돼 우스갯소리로 '날씨가 영업상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컨대 무더운 날씨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온이 27~28도를 웃들면 아이스크림 매출은 되레 떨어



어진다고 한다. 얼음 알갱이가 씹히는 빙과류를 더욱 선호하고, 아울러 30도를 넘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일 경우엔 청량음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 유통가 '날씨에 웃고 운다'

유통업계에선 보편적으로 여름은 덥고, 반면 겨울은 추운 날씨를 반기고 있다. 계절에 맞는 날씨를 보일 때 관련 상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높아지는 까닭에서다. 유통업계에선 지난 해 날씨 덕분에 독특한 재미를 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매출 일등공신으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던 날씨 덕분에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동안엔 변덕스러운 날씨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추위가 이어진 1~2월에는 방한의류, 겨울의류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모피류의 경우 혼수 수요와 함께 추운 날씨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백화점 히트상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 들어선 봄 정기 바겐세일 덕분에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 변화가 심하면서 겹쳐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상품과 단가가 높은 바람막이 점퍼 등 아웃도어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이와 함께 5월엔 기온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선글라스, 반팔 T셔츠 등 여름시즌 상품 매출이 양호한 매출실적을 보였다

여기에서 대백프라자점 전자관의 경우 일찍 찾아온 무더위 덕분에 에어컨 매장 방문 고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50% 이상 늘

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백화점 업계가 지난 한해 날씨 때문에 마냥 웃음꽃을 피운 것은 아니다. 늦더위 탓에 의류 매출이 감소해 울상을 짓기도 했다. 대구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 때문에 가을 신상품 매출이 곤두박질 치자 매장 직원들이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어느 정도였을까. 추석이후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탓에 핫팬츠, 수영복 등 여름시즌 상품 매출이 특수를 누리는 등 가을상품 매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 패션 업계도 날씨마케팅 강화

날씨마케팅은 이처럼 관련업체계에서 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들어선 백화점업계에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듯 유통업계에선 기후 변화를 미리 예측해 제품 수요를 전망하고 주요 상품을 확보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바겐세일 기간을 정하고, 재고관리 및 신규 발주도 기상 여건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

날씨마케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비단 유통업계만은 아니다. 최근들어선 국내·외 의류 브랜드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봄과 가을 주기가 과거보다 많이 짧아지자, 간절기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등 날씨마케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일명 '트랜스포머형' 제품군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맥락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지난해 봄시즌의 경우 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자 후드나 조끼, 안감 등을 탈·부착 할 수 있는 사파리 및 점퍼류를 보강해 매출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구승본 대구백화점 마케팅총괄실장은 "(대구백화점 역시) 날씨변화에 따라 영업 전략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면서 "날씨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확한 발주 등 손실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커, 이와 관련된 마케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나 유통전문기자

# “경주에 대기업노동조합 자연휴양림 들어선다”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300억원 투자...휴양·복지시설 조성

경북 경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기업노동조합의 자연 휴양림이 조성된다. 대기업노동조합이 직접 투자를 통해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최근 경북도와 경주 산내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필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우병운 경주부시장, 권경수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조성될 경주산내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 지원은 물론 교류 사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주 산내면 대현리 산 211-1번지에 들어서는 경주산내자연휴양림은 57ha 규모로 3년에 걸쳐 조성된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해 휴양 및 건강검진시설 등 사원 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기업노동조합이 수백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자연휴양림 조성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휴양림이 조성되면 5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1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투자유치는 경북도가 지향하는 산림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경북에 투자하기를 바라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청송 유치에 이어 고려대 산림형 연수원 영양 유치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산림비즈니스 창출사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도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숲가꾸기, 사방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나아가 테라피단지, 휴양림, 트레킹로드 조성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숲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전 국민의 휴양복지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

산림자원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기준으로 경북지역에는 문경(대야산), 영양(검마산), 영덕(칠보산), 청도(운문산), 봉화(청옥산), 울진(통고산) 등 총 6곳에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있다.

공립 자연휴양림도 경주(토함산), 안동(계명산), 구미(옥성), 영주(옥녀봉), 영천(운주산), 상주(성주봉), 문경(불정), 군위(장곡), 의성(금봉), 칠곡(송정), 울진(구수곡) 등 13곳에 달한다.

전국에서 자연 휴양림이 가장 많은 대표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는 얘기가.

성진화 선임기자





# 대구 서구청 화상경륜장 유치 않기로

## 세수확보 효과 미비...사행성 논란도 악영향



대구 서구청이 창원경륜공단의 화상경륜장 유치에 결국 손을 떼기로 했다. 표면적 이유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인 듯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세수확보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실망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구청에 따르면 창원경륜공단은 지난해 11월 서구청에 화상경륜장 유치를 제안했다.

창원경륜공단 측은 아울러 당시 사업 유력 후보지로 서구 원대3가 플러스웨딩(옛 금성예식장)이 좋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해 12월 초순 현장답사팀을 꾸려 화상경륜장이 들어서 있는 창원경륜공단 감해지점과 부산경륜공단 광복동, 서면지점을 둘러보는 등 최근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화상경륜장 유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수확보 및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청은 지난해 12월11일 돌연 화상경륜장 유치에 나서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구청 측이 화상경륜장 유치를 포기한 것은 사행성 조장 등 지역사회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 한 몫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세수 확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게 분석된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구청 측은 당초 화상경륜장에서 연간 1천억

원의 매출 발생을 가정해 전체 매출의 1.5% 수준인 15억원의 레저세 수입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자체 검토 결과, 실제 세수익은 이에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1억5천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도 전체 매출의 5%가량을 창원경륜공단이 소재한 경남도가 징수하는 등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 문제도 적잖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문화공보과 관계자는 "당초 창원경륜공단 측이 매출 발생의 1.5% 가량을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검토결과 0.15%에 불과해 세수익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서 "특히 사업 예정지인 원대동 주민들의 반발 등 사행성 조장 우려감도 적지않은 만큼 화상경륜장 유치를 않기로 최종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2004년 대구 달서구 유천동 글로리아웨딩을 사업장소로 지정하고, 달서구청으로부터 용도허가를 받았지만 1년 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달서구청이 화상경륜장 허가권을 취소했다.

현재 국내에서 화상경륜장이 들어서 있는 곳은 창원경륜공단 1곳, 부산경륜공단 2곳,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1곳 등 총 21곳으로 집계된다.

〈번길국〉

# 대구·경북지역 축산농가 큰 폭 감소

## 사육마릿수는 급증...연소득 1억이상 축산농도 증가



대구·경북의 축산농가가 20년새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육 규모는 크게 늘어나면서 '규모의 영농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농가 규모와 사육마릿수, 소득 규모 추이 등 대구·경북의 축산업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 농촌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대구의 축산농가는 1만6천974가구로, 이 중 한·육우 사육 농가는 1천182가구(7.0%)로 집계됐다. 최근 20년간(1990~2010년) 대구지역의 한·육우 사육 농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0년 5천254가구에서 1995년(3천522가구)과 2000년(1천660가구), 2005년(1천392가구)에 이어 2010년엔 1천182가구까지 떨어지는 등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육마릿수는 2010년 기준으로 닭이 145만3천818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돼지(10만1천214마리)와 한·육우(2만5천778), 젖소(2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도내 한·육우 사육농가는 3만4천899가구로 전체 축산농가(20만1천651가구)의 17.3%를 차지했다. 경북지역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최근 10년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지난 2000년 27만6천410마리에 그쳤던 것이 2005년엔 38만2천874마리로 늘어났으며, 특

히 2010년엔 60만1천413마리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육마릿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산지가격 강세흐름이 지속되면서 송아지 입식을 늘린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돼지사육마릿수도 86만8천279마리에서 109만2천279마리로 증가했으며, 닭도 1천496만7천161마리에서 1천821만8천788마리로 확대됐다. 반면 젖소 사육마릿수는 1990년 7천342마리에서 2010년엔 2천127마리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젖소 사육농가도 같은 기간 495가구에서 41가구로 줄었다. 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되자 사육규모를 줄인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결과, 축산물 판매규모는 1천만원미만 농가가 60.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 농가도 16.1%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연소득 1억원 이상 축산농가는 3천723가구로, 1995년 대비 20년새 1천470.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영농'을 통해 부농(富農)의 꿈을 일군 축산농가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 제일의 한·육우 출하 지역"이라면서 "축산농가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상인 농가도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등 축산환경이 규모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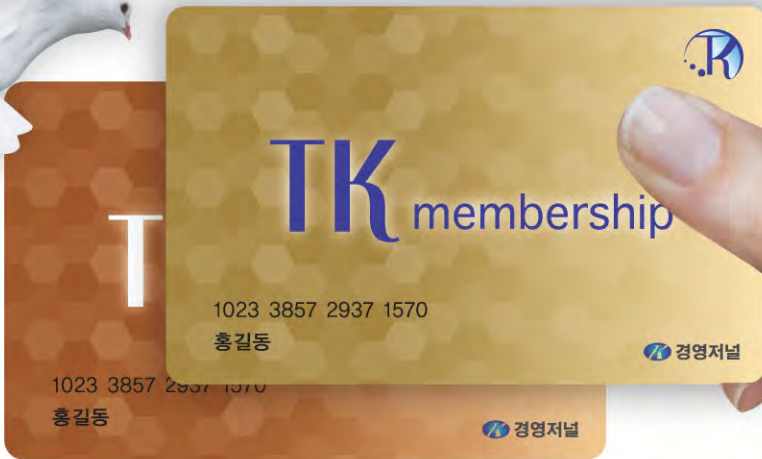
이동현 통계전문기자

#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10여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술 및 원가계산·검토,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용역 3천건 이상을 수행한 공익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 TK 경영저널이 membership card 를 발행합니다.



## *best* 경영저널이 만든 프리미엄 카드!

- ✓ TK멤버십카드는 대구·경북경제통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공익차원의 멤버십카드입니다.
- ✓ TK멤버십카드 회원에게는 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등 회원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 ✓ 경영저널은 회원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